

암행어사 콘텐츠의 양상과 의미

TV드라마를 중심으로

The aspects and meaning of the amhaeng-osa content:focusing on TV dramas

서보영**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암행어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문화콘텐츠로 변모한 결과물을 '암행어사 콘텐츠'로 보고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그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암행어사 이야기의 현대적 변모와 향유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정치적 제도의 하나이자 실제 역사적 사실이다. 그들의 행적은 설화로 널리 회자되면서 다양한 소설 작품으로 파생되었다. 암행어사 제도가 폐지된 근대 이후에도 암행어사는 각양의 매체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암행어사 콘텐츠는 인물의 형상이나 구조, 내용의 측면에서 변용의 폭이 크지 않은 채로 향유된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TV 드라마이다.

그중에서도 2000년대 한류 역사 드라마의 유행 속에서 암행어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등장한 kbs2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과 tvN <어사와 조이>에서는 어사단의 구성을 통해 암행어사의 암행에 도움을 주고 서사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개한다. 고급을 아우르는 다양한 소재들이 활용되었으며 암행어사 이야기들의 문제 해결식 구조를 계승하고 있다.

TV 드라마 속 암행어사 이야기는 친근하고 친숙한 영웅들의 출현을 바라는 기대 심리를 담고 있다. 또한 역사적·허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암행어사 이야기에 문화적이고 현대적인 면모를 더함으로써 당대와 현대의 사회상을 투영할 수 있다. TV 드라마 속 암행어사 이야기의 문제 해결식 구조는 서브플롯의 설정을 통해 다양한 삽화를 담을 수 있고 자유로운 장르의 전환과 인물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적 원형이자 창작 소재로서의 의미를 확보한다.

핵심어 암행어사 콘텐츠, TV 드라마, 한국적 원형, 양상, 의미

- 차례**
1. 서론
 2. 암행어사 콘텐츠의 인기
 3. TV 드라마 속 암행어사 콘텐츠의 양상
 4.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암행어사 콘텐츠의 의미
 5. 결론

1. 서론

넓게는 작품의 범주에서 좁게는 인물이나 화소, 제재 등에 이르기까지를 탐색하여 콘텐츠로 변모하려는 노력은 고전문학 연구에서 계속되어 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암행어사인데 이 연구에서는 암행어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재구성되어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변모한 결과물을 '암행어사 콘텐츠'로 보고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그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암행어사 이야기

* 이 연구는 2024년 4월 13일 한국어문교육연구회와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245회 전국 학술대회"의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의 현대적 변모와 향유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고전소설과 텔레비전은 매체와 양식이 다르지만 문화적 위상이나 서사적 특성에서 유사성을 보여준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도 지식층의 외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통속문화, 대중문화로서의 공통점을 보여주며 그런 성격으로 인해 ‘유형성’, ‘중층적 서사 전개’, ‘열린 구조’, ‘보편적 가치의 강조’라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고전소설은 조선시대의 텔레비전 드라마이고 텔레비전은 오늘날의 고전소설이다.²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TV 드라마와 고전소설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암행어사 콘텐츠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1980년대부터 TV 드라마에는 암행어사 콘텐츠를 적지 않게 다루어 왔는데 대체로 암행어사의 활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³ 또한 암행어사 드라마들은 매번 원작 없이 창작되었다는 점도 특이할만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이른바 ‘월메이드 역사드라마’들이 대거 등장하였고 한류가 발전적으로 이어졌기에⁴ 여기서는 암행어사 이야기가 현재적으로 적용된 사례의 하나로 암행어사 드라마인 kbs2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과 tvN <어사와 조이>에 주목하였다.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이하 <암행어사>로 칭함)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 KBS2에서 방영된 16부작 드라마이다.⁵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비리

에 맞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선시대 왕실의 비밀 수사관 암행어사와 어사단의 통쾌한 코믹 미스터리 수사극”으로 소개되고 있다. <어사와 조이>는 2021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 tvN에서 방영된 16부작 드라마⁶로 “엉겁결에 떠밀려 어사가 돼버린 허우대만 멀쩡한 미식가 도령과 행복을 찾아 돌진하는 조선시대 기별부인(이혼녀)의 명랑 코믹 커플 수사썰”로 소개되어 있다.

양자는 2000년 이후의 암행어사 드라마들로 유사한 시기에 제작되었다. 기존의 암행어사 이야기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암행어사의 의미를 찾고 서사의 재미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 기존의 암행어사로서의 형상을 벗어나 암행어사 역할에 이름난 아이돌 스타 배우를 기용했다는 것, 코믹 수사극을 장르로 삼았다는 점에서 전작들과 차이를 두었다. 이외에도 중앙 정부와 결탁된 지방 관리들과 암행어사 간의 극한 갈등, 권선징악의 구조, 사연과 상처를 지닌 등장인물들, 신분 문제로 대 표되는 당대의 사회상을 담고 있다는 점,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use) 방식이 아닌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한편, 역사적 배경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암행어사>의 경우 역사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어사의 첫사랑이 천주교 박해를 당하는 점, 어사의 이복동생이 민중 봉기에 가담하는 점, 꼭두각시인 왕과 영의정 김병근을 세도가문 권력자로 등장시킨 점⁷ 등에 비추어 철종 시대 후반으로 추측된다. 한편, <어사와 조이>에서는 역사적 배경이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편인데 조이의 어머니가 청으로 끌려갔다가 환향녀로 살아가는

2 정병설, 「고소설과 텔레비전드라마의 비교」, 『한국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221~222쪽.

3 그간 TV에서 방영된 암행어사 드라마는 다음과 같다. 암행어사를 주인공으로 암행의 과정이 핵심 서사를 구성하는 드라마에 국한하였다. 방송국, 제목, 연도순으로 mbc <암행어사>(1981~1984), kbs2 <비가비>(1992~1993), kbs2 <어사출두>(1999), mbc <어사 박문수>(2002~2003), mbc <탐나는도다>(2009), kbs2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2020~2021), tvN <어사와 조이>(2021)를 들 수 있다.

4 조미숙, 「드라마 스토리텔링 방식의 특성: 2000년대 이후 한류 역사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4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4, 446쪽.

5 <https://program.kbs.co.kr/2tv/drama/royalsecretagent/pc/index.html>(최종확인 2024.3.3)

6 <https://tvn.cjenm.com/ko/inspectorjoy/character/?pgmPrsnGropSeq=2034>(최종확인 2024.3.3)

7 김종성의 사극으로 영화읽기 663: 철종이 우울증·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린 이유.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71902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최종확인 2024.3.3)

모습, 청에 불모로 잡힌 세자가 독살되는 사건, 왕이 세자를 향해 벼루를 던지는 장면, 왕이 인절미를 좋아하는 모습 등을 통해 소현세자와 인조를 연상시킨다.

2. 암행어사 콘텐츠의 인기

암행어사 이야기와 관련한 연구는 암행어사 박문수 관련 설화, 암행어사 소설, 암행어사 이야기의 현재적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대표적인 암행어사는 박문수로 그와 관련된 설화를 살펴볼 수 있다. 박문수 설화 연구에서는 역사적 인물인 그가 설화에서 암행어사로 형상화된 연원이나 기반을 찾는다. 이는 박문수의 역사적 실상과 설화적 형상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 때문인데 박문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대부분 후자이다.⁸

박문수 설화는 『청구야담』, 『동야회집』, 『계서야담』, 『기문총화』 등의 야담집에 17편,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의 민담』을 비롯한 설화집에 300여 편이 전해오며 전국 각 지역에서 구전되어 왔다. 설화 속 암행어사 박문수의 모습은 정의의 심판자, 백성의 원조자, 도움을 받는 사람, 평범한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신이한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나타난다.⁹ 이는 ①올바른 관리의 출현에 대한 기대, ②고난 극복의 의지와 기대, ③충, 효, 열, 신의, 인정의 강조, ④신분제 동요의 현실 인정, ⑤민족의식의 강조 등의 민중 의식을 반영한 결과이다.¹⁰

이외에도 문헌으로든 구전으로든 오늘까지 전해오는 암행어사 이야기는 수백 편에 이르는데 박문수가 아닌 다른 혹은 무명 어사 이야기에서 암행어사는 ①부정을 저지른 관리에게 엄한 심판자, 또는 징계자, ②불쌍한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포상을 하는 협조자, 해결자, ③일반 백성보다 슬기 면에서 부족하고 우둔한 사람 ④일반 백성보다 음욕(淫慾)면에서 실수를 할 뻔한 일시 수신(修身)을 못하는 사람의 면모를 보인다.¹¹ 가장 높은 지위에서 가장 낮은 백성 자리를 오가면서 정의를 실현하고 백성의 희로애락과 불만과 소원과 애로(隘路)를 알고 간접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직접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한다는 점에서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¹²

육재용은 암행어사가 등장하는 고전소설을 ‘암행어사 소설’로 보고 〈월봉기〉, 〈춘향전〉, 〈박문수전〉, 〈삼쾌정〉을 대상으로 암행어사의 기능과 역할이 각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 〈월봉기〉, 〈박문수전〉, 〈삼쾌정〉에 공통으로 드러난 핵심 의미를 ‘신원’과 ‘복수’로 규정한 반면 〈춘향전〉에서는 암행어사가 사적·공적으로 두 가지 큰 과업을 수행하는데 첫째는 춘향을 구출하여 지고한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고, 둘째는 포악한 권리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변별된다¹³고 보았다. 〈춘향전〉은 사실적 측면보다 문학적 정감에 우위를 둔 암행어사 이야기로 암행어사 출도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극적 표현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¹⁴ 이외에도 암행어사가 등장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작품들은 〈오유란전〉, 〈이몽선전〉, 〈단발령〉, 〈미인도〉 등으로 적지 않다.

단 두 차례에 걸쳐 암행어사로 활약하였던 박문수가 지금과 같이 이상적 암행어사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된 것은 소설 〈박문수전〉의 영향이 크다. 구활자본 〈박문수전〉(1915)에서는 1910년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 이후의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가 극에 달했던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울

11 최래옥, 「암행어사 이야기」,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박이정, 1999, 86~87쪽.

12 위의 논문, 130~131쪽.

13 육재용, 「암행어사 소설에 드러난 어사의 기능과 역할」, 『한민족어문학』 37, 한민족어문학회, 2000, 25쪽.

14 설성경, 「〈춘향전〉을 통해 본 암행어사 이야기」,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박이정, 1999, 181쪽.

8 이승수, 「박문수 전승의 역사적 기반 탐색」, 『한국문화』 42, 서울대 규장각 한국문화연구원, 2008, 37~38쪽.

9 최운식, 「설화에 나타난 암행어사 박문수」,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박이정, 1999, 139~140쪽.

10 위의 논문, 155~160쪽.

바른 위정자의 출현을 갈구했다. <박문수전>은 우국애민 하는 백성들의 구원자, 박문수와 같은 진정한 영웅의 출현을 기대한 작품이다.¹⁵ 소설 <박문수전>의 박문수 일화는 이전의 야담집에 수록된 박문수의 부정적 이미지들을 모두 거세하고 박문수를 이상적 관리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로써 역사 속의 박문수는 소설을 통해 어사 혹은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재탄생하게 된다.

한편, 일제 강점기를 지나 아동용 전집과 위인전의 주인공으로 박문수가 사랑을 받게 되며 박문수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 군사 독재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박문수는 국난 극복의 영웅, 정치가와 더불어 한국을 빛낸 대표적 위인 가운데 하나로 조명 받게 되었다.¹⁶ <박문수전>, 그 중에서도 제1회는 1960년대 후반부터 현대소설로 개작·변이되기 시작하였으며 소설이 다시 설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박문수 이야기는 대중소설, 아동소설, 만화, TV 드라마 등으로 개작·변이·패러디되어 거듭 확대·생산되어 왔다.¹⁷

문화콘텐츠로서 고전소설의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웹툰이나 웹 소설에서도 암행어사 이야기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은 작품은 만화 <신 암행어사>이다. 우리 고전의 암행어사 이야기를 현재적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구현해 낸 콘텐츠로 평가받으며 원천소재로서 암행어사의 성공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¹⁸ 2001년에서 2007년까지 출간된 <신 암행어사>는 우리가 아는 여러 고전 작품들 속의 인물과 위인들 그리고 작품의 이야기 틀을 가져와 무협소설, 판타지소설 등의 요소를 적절하게 섞어 새로운 암행어사

이야기를 만들어냈다.¹⁹

2000년대 이후 웹 소설에서도 암행어사와 관련된 콘텐츠가 계속 생산되고 항유된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언급하면 초코숲, 『암행어사의 이중생활』(문피아, 2023) 50화, 귀차, 『호랑이 어사, 조선을 뒤흔들다』(네이버, 2022) 299화, 킹네이크, 『소설 속 암행어사가 되었다』(네이버, 2022) 215화, 원종, 『암행어사 공주』(네이버, 2022) 39화, Write 형제, 『헌터에서 암행어사로 전직!』(조아라, 2019) 35화, 김정미, 『내 사랑 암행어사』(네이버, 2016) 23화, 류연, 『진(進)암행어사』(문피아, 2011) 32화 등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암행어사는 인물이자 모티프, 구조, 제재로 기능하며 박문수를 중심으로 각종 설화에서 반복적으로 회자되었다. ‘암행어사 소설’이라는 용어를 형성시키며 여타의 소설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매체로의 변용에서도 구성이나 내용의 변이 없이 여러 차례 영상화되는데 이는 TV 드라마에서 두드러지는 바이다. 이를 바탕으로 웹툰과 웹 소설에서도 진행형의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기에 한국적 문화원형이자 창작소재로서의 가능성²⁰을 타진해 볼 수 있다.

3. TV 드라마 속 암행어사 콘텐츠의 양상

3.1. 어사, 연인, 하인으로 구성된 어사단

TV 드라마 속에서의 암행어사는 개인이 아닌 어사단의 형태로 활동하며 이들은 어사와 그의 연인인 여인, 그를 돕는 조력자인 하인으로 구성되어 서사의 중심이 암행어사에만 집중되지 않는다. <암행어사>에서 어사단은 암행어사인 성이겸과 다모인 홍다인, 그리고 이겸의 몸종인

15 오윤선, 「박문수전에 나타난 박문수의 인물형과 고전서사물에서의 변이 양상」, 『우리어문연구』 31, 우리어문학회, 2008, 179쪽.

16 심재우, 「역사 속의 박문수와 암행어사로의 형상화」, 『역사와실학』 41, 역사학회, 2010, 28~31쪽.

17 육재용, 「박문수전의 현대소설·설화로의 변이 양상」, 『고소설연구』 11, 한국고소설학회, 2001, 306쪽.

18 유광수, 「암행어사 이야기의 현재적 적용과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하여: <신 암행어사>를 대상으로」, 『온지논총』 37, 온지학회, 2013, 305쪽.

19 고훈, 「고전문학과 만화의 결합 양상 연구: 만화 <신암행어사>에 차용된 고전요소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5, 대중서사학회, 2011, 133~134쪽.

20 문화콘텐츠의 창작소재로서의 문화원형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정신사적 함의를 지닌다. 송성욱, 「문화콘텐츠 창작소재와 문화원형」, 『인문콘텐츠』 6, 인문콘텐츠학회, 2005, 85쪽.

박춘삼이다. <어사와 조이>에서 어사단은 암행어사인 라이언과 기별부인인 김조이, 그리고 라이언의 몸종인 육칠과 구팔이다. 철없는 젊은 암행어사와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여인, 그리고 중복으로 이루어진 암행 수사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여성이 암행의 동행자로 설정된 것은 이색적인 부분이다.

<암행어사>에서 암행어사 성이겸은 20대 홍문관 부수찬으로 누가 봐도 무사태평에 돈이 생기면 기방이나 들락거리는 난봉꾼이다. 그는 장원급제하여 궁궐에 입성하고 무술 실력까지 겸비한 출중한 인재였으나 사랑했던 연인과 동생에게 배신을 당한 후 허랑방탕한 인생을 스스로 택하였다. 그러던 중 야밤에 노름판을 벌이다 발각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암행어사가 되라는 명을 받게 된다.

암행어사의 여인인 홍다인은 장안 최고의 기녀로 황진이와 미모와 논개의 기백을 갖추었다. 그녀는 다모로 도승지의 명으로 숨겨진 정보를 캐기 위하여 기녀로 위장하였다. 그녀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도 개의치 않는 것은 자신의 진짜 과거를 되찾으려는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사단에 합류한다. 박춘삼은 꼬마 때 이겸의 집으로 팔려와 10년 넘게 이겸을 모셔온 몸종으로 그에게 성이겸은 주인 그 이상의 존재이다. 호기심과 의욕, 눈물과 정이 많으며 금세 사랑에 빠지는 순수청년이다.

<어사와 조이>에서 암행어사 라이언(羅二言)은 나주 라씨의 5대 독자로 작은 만두집이나 차려 장사나 하며 살고 싶었으나 머리가 좋아 조선 최고의 엘리트 코스인 홍문관 부수찬으로 발탁된다. 점심시간과 정시 퇴근을 엄수하는 매너리즘 중 6품 공무원의 삶을 살던 중 임금의 밀명을 받아 어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암행어사의 여인인 김조이는 노름꾼에 마마보이인 서방과 이혼 송사를 벌이던 중 어사를 만나게 되고 이혼 후 어사단에 동참한다. 육칠과 구팔은 라이언의 중복으로 어릴 때부터 라이언을 챙겨 그의 습성을 잘 알고 있으며 가끔 양반 행세를 하는 즐거움으로 어

사의 암행을 돕는다.

암행어사단의 구성은 그 자체로 인물 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복수의 인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에 용이하다. 협력 체제를 이루는 암행어사단은 암행어사가 해야 할 일을 나누어 맡아 동시에 여러 일을 해결한다. 한 가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일을 처리하거나 개인이 위협에 처했을 때 서로 구하기도 한다. 더불어 암행어사는 비밀리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까닭으로 끼니를 거르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바 산분을 속이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암행어사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암행어사>에서 춘삼이 이겸으로 변장하고 <어사와 조이>에서는 육칠이 이언으로 변장한다. 끝으로 어사단의 설정은 인물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사적인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자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인과 조이가 암행의 과정에서 어사와 애정 서사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숨은 사연이 드러난다. 어사를 보조하는 춘삼이나 육칠 혹은 구팔과 어사와의 신분을 넘어서는 우정이 부각되고 각자가 벌이는 작은 삽화들도 암행 과정을 풍부하게 한다.

3.2. 고금을 아우르는 다양한 소재의 활용

<암행어사>와 <어사와 조이>는 각각 철종시대와 인조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재들이 활용된다.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소재는 신분이다. 다른 남녀의 사랑, 적서차별, 고통 받는 백성의 삶, 여성 수난, 장원급제, 남장여자(혹은 여장남자), 민속놀이, 음식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주요한 것은 신분이다. 다른 남녀의 사랑이나 적서 차별, 고통 받는 백성의 삶, 여성 수난으로 크게는 조선 시대 신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암행어사>에서 이겸이 문무의 재능을 갖추었지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첫사랑에 실패한 상처 때문이다. 이겸의 첫사랑인 순애는 기녀의 딸로 이겸이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난 후 관장의 수청 명령을 거

절하고 이겸의 동생과 함께 도망을 간다. <어사와 조이>에서 조이는 이혼한 중인 신분의 여성으로 양반인 이연과 사랑에 빠지지만 신분 차이로 인해 둘의 혼인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이연의 할머니인 조씨 부인은 크게 고민한다. 이외에도 노비인 육칠과 중인인 광순도 신분으로 인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암행어사>에서 이겸의 상처 중 또 다른 하나는 이복동생인 이범의 존재이다. 신분이 달랐지만 남달리 돈독했던 형제는 만민이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 사람은 어사가 되고 한 사람은 도적의 무리인 비적단의 두목이 되어 대립한다. <어사와 조이>에서 영의정 박승의 서자인 박태서는 서얼차대에 대한 불만으로 양반 서얼들로 조직된 도적단인 강변사우의 수괴가 되어 암행어사와 대립한다.

<암행어사>에서는 죽은 자에게 세금을 걷고 어린 아이들도 군포의 대상이 되는 사건(2회), 강상죄를 저지른 백성들이 인간 사냥의 제물이 되는 사건(3회), 사월의 동생을 비롯한 남성들이 화염산 잠채 노역장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하는 사건(4회), 백성들이 관군의 공양미를 훔쳐 달아난 사건(10회), 스스로를 팔아 노비가 되는 자매문기와 노비장 사건(15회) 등이, <어사와 조이>에서는 유점소에서 소양상단으로 보내져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모습(4회), 나라에 진상해야 할 꿩고기 값이 인상되어 어려움을 겪는 모습(4회), 조이의 전남편인 노추한을 비롯한 남자들이 백귀령 쇠부리터에서 은광석을 채굴하는 사건(7회) 등의 고통 받는 백성의 모습이 강조된다. 특히 여성 수난의 서사가 두드러지는데 <암행어사>에서 수령의 아들인 강종길의 아이를 가졌던 기생 사월은 진실을 밝히려다가 죽음을 당한다. 귀선 낭자를 비롯한 여성들은 연쇄 살인 사건의 희생자이며 <어사와 조이>에서도 수령의 치부책을 보관 하던 보리는 임신한 채로 죽음을 맞이한다. 조이의 어머니인 덕봉은 환향녀로 청에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후에도 사회로부터 배척당한다. <어사와 조이>에 등장하는 조이, 비령, 공순, 덕봉, 벼루아짐 등의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부모

나 자식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일부나 전부를 상실한 상태로 그들은 서로 간의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며 삶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외에도 남장과 여장의 화소나 민속놀이, 음식 등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암행어사>에서 다인은 남북으로 활동하며 어사인 이겸과 춘삼은 기방에 잠입하기 위해 여자로 분한다. <어사와 조이>에서는 여자로 변장한 구팔에게 최말종이 첫눈에 반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 암행어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속놀이가 활용되고 전라도 지역에서 어사가 즐겨 먹는 음식은 비빔밥이다.

이상의 소재들이 주로 과거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들이었다면 현재의 소재를 과거에 투영하여 재현한 것들도 찾아볼 수 있다. <암행어사>에서는 몸종인 춘삼이 마을 과부에게 금세 사랑에 빠지는 모습인 ‘금사빠’나 춘삼과 어사의 ‘브로맨스(bromance: 남성 간의 우정과 사랑), 청나라 유학파인 양반집 자제들이 앵숙(마약)에 빠지는 사건을 찾아볼 수 있다. <어사와 조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현대적 소재를 작품에 적용하고 있다. 우선 1회에서부터 어사직을 공무원이라 명명하며 어사가 직접 도시락을 싸서 동료들과 나누어 먹고 맛집을 탐방한다. 주인공인 조이가 수령 앞에서 이혼 송사를 벌이는 모습, 영의정 박승이 아들을 위해 건축업자에게 일자 모양으로 집을 지을지 깎자 모양으로 집을 지을지 인테리어를 논의하는 모습, 한양 집값이 폭등하여 전세 사기가 만연한 모습, 차를 테이크 아웃(take-out)하여 데이트하는 모습, 청혼 선물로 비녀를 주는 모습, 주5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모습, 별점으로 음식점을 품평하는 모습 등 시대적 배경만 바뀌었을 뿐 장면의 설정은 현대의 것들을 고스란히 옮겨 놓았다.

3.3. 문제 해결식 구조의 변조

<암행어사>, <어사와 조이>는 공통적으로 수사극을 표방하며 송사소설의 문제 해결식 구조를 취하고 있다. 어사가 암행에 나서며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서사의 주된 진행 과정이라는 점에서 암행어사 설화나 암행어사 소설의 구조와 궤를 함께 하고 있다. 각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암행어사〉

사건	문제	해결	회차
1	전임 암행어사 박철규 실종 사건[황해도]	현감 강인충과 강종길의 처단 : 화염산 사역장과 사월	2-5
2	고리대금업자 이대감 일가족 살인사건[충청도]	수령 장근을 처단 : 비적단, 투전방과 증인 애란	6-8
3	여성 연쇄 살인 사건[전라도]	지방 세력과 결탁한 수령의 처단 : 기방의 비밀연회와 앵숙	8-10
4	관찰사 김명세 사건(취안군의 역모와 죽음에 얽힌 진실)[전라도]	영의정 김병근의 귀양과 그의 아들 김만희의 처단 : 산문산 사건	10-13
5	전주 관찰사 변학수와 도적떼 사건(두 개의 상소)[전라도]	영의정 김병근과 변학수의 처단 : 노비장과 농민 봉기	13-16
6	가짜 암행어사 사건	예정	미방영

〈암행어사〉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도승지 장태승과 영의정 김병근이 대립하는 가운데 다섯 개의 사건이 발생하고 해결되는 전형적인 문제 해결식 구조를 보인다. 하나는 전임 암행어사 박철규가 실종되는 사건으로 이로 인해 암행어사 제도 폐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겸이 황해도 암행어사로 파견된다. 박철규를 살해하고 사역장 운영을 통해 큰 부를 누리던 강인충 부자를 처단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두 번째 사건은 충청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투전방을 운영하던 고리대금업자인 이대감 일가족이 살해당하고 이 사건의 범인으로 비적단이 지목된다. 이 대감의 서녀인 애란의 증언으로 이 대감의 부를 탈취하기 위해 수령인 장근이 벌인 일로 밝혀지며 사건이 해결된다.

세 번째 사건은 전라도에서 여인들이 탈을 쓴 자에게 연속하여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청나라 유학생들이 기방에서 벌이는 환각 파티로 예측하였으나 그 배후에 수령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네 번째 사건은 다인의 아버지인 취안군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시 선정군이었던 김명세를 찾은 것으로 그간의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인물이 영의정 김병근 부자임이 밝혀진다. 다섯

번째는 10화에서 청주 목사였던 변학수가 전주 관찰사로 오고 귀양 중이던 김병근과 결탁하여 양민을 도적으로 간주하여 핍박한 사건으로 김병근이 사형에 처해지면서 끝이 난다.

이 모든 사건에 이겸이 관여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데 첫 번째는 투전을 한 짓값을 치르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동생인 이범이 도적단의 수괴로 지목되면 서이다. 전라도에서 발생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사건은 휘안군의 증좌를 찾으려는 다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섯 번째 사건 역시 동생인 이범의 문제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어사와 조이〉

사건	문제	해결	회차
1	전임 암행어사 박무경의 실종 사건	박무경의 시체를 찾아 수령 장기완 처단	1-3
2	보리의 죽음과 치부책의 분실 사건	배후를 밝힘 : 영의정의 수하 홍석기와 개화골 이방	1-6
3	수령 장기완의 살인 사건	배후를 밝힘 : 영의정의 서자 박태수	2-3
4	소양상단과 곡두상단의 횡포와 백귀령 쇠부리터의 채굴 사건	배후를 밝힘 : 박태서, 차말중, 지맹수, 강한기	4-7
5	해운판관 홍석기의 죽음	배후를 밝힘 : 영의정의 장자 박도수	7-8
6	세자의 독살	영의정 박승과 그의 장자, 박도수 처단	10-15

〈어사와 조이〉에서는 우유부단한 왕과 실권을 장악한 영의정 박승이 모든 사건의 배후로 등장하며 연속적으로 여섯 개의 사건이 발생한다. 경기도로 파견되었던 암행어사가 거의 죽어 돌아오고 충청좌도로 파견되었던 암행어사 박무경이 실종된다. 모든 신하들이 파견을 꺼리면서 신임인 이언이 암행어사가 된다. 맞집이나 탐방하려던 이언은 그곳에서 한 여성(보리)의 죽음을 목도하고 이것이 암행어사의 실종과 관련되었다고 추측한다. 이언은 어사의 시체를 찾아 사건을 목인한 수령 장기완을 처벌한다. 이후 화살이 날아와 장기완이 살해되고 배후를 찾는 과정에서 소양상단과 곡두상단, 그리고 꼬리섬의 존재를 알게 된다. 이 사건의 주동자가 박태서를 비롯한 차말중, 지맹수,

강한기로 이루어진 강변사우임을 확인한다. 치부책을 찾던 해운판관 홍석기의 시체가 발견되고 어사가 범인으로 지목된다. 백귀령 쇠부리터를 찾아 토벌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증좌가 부족하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이언은 죽음을 위장하여 세자 살해의 범인이 박승과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어사와 조이〉에서 가장 주된 사건은 세자의 독살로 이언은 막역지우였던 세자의 죽음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암행을 이어간다. 아들의 죽음을 모른 척한 왕과 왕을 등에 업은 영의정 박승, 그의 아들과 친구들이 일으킨 횡포와 살인이 사건을 구성하고 모두를 처단하면서 끝이 난다.

〈암행어사〉와 〈어사와 조이〉는 왕족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선행 사건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후에 있는 영의정 김병근과 영의정 박승이 어사와 각각 대립하는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암행어사〉에서는 어사단이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발생하는 각개의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면 〈어사와 조이〉는 세자의 독살이라는 큰 사건 아래에서 파생된 개별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사연이나 비밀이 밝혀지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문제해결식 구조를 보이고 있다.

4.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암행어사 콘텐츠의 의미

4.1. 영웅들에 대한 회구

암행어사 서사물이 성행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작품 속의 암행어사와도 같은 영웅의 출현을 독자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신원(伸冤), 세원(洗冤) 무원(無冤)은 위정자나 국민 모두에게 시대를 초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²¹ 이는 제작자의 발언에서도 확인되는 바인데 〈암행어사〉의 극본을 맡은 박성훈·강민선 작가는 “지

금 우리에게도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에서부터 작품이 시작됐다”라며 집필 계기를 밝혔다. “감췄던 신분을 드러내고, 악인들의 죄를 호령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탁월한 존재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됐다”라고 덧붙이며, ‘이 시대의 영웅’으로서 암행어사를 선택한 이유를 털어놓았다.²²

TV 드라마에 나타난 암행어사의 형상은 간신과 충신이 대립하는 혼란한 정국, 집안의 몰락, 재자가인의 면모, 하나의 무력한 존재가 태생적인 영웅다움을 찾음으로써 왕의 대리자로서 거듭난다는 점에서 고전소설 속 영웅의 형상과 매우 흡사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영웅의 형상은 여성 인물에게도 반복되는데 충신의 모해로 억울한 죽음에 이른 부모를 신원하고 가문을 재건하며 남장을 통해 문제 해결에 개입하고 타고난 능력으로 남성의 조력자로 역할하며 삶을 개척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영웅성을 구축한다.

그렇지만 영웅으로서의 암행어사의 형상이 영웅의 전형성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니다.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이 겪는 시련은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집중되기 때문에 평범한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는 것에 반해 암행어사의 경우 백성들이 암행어사를 자신들의 삶에 존재하는 진정한 영웅으로 인식하게 된다. 주인공이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영웅소설에서 발견되는 영웅의 모습과 구별된다.²³ 또한 문헌설화에서도 박문수로 대표되는 암행어사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친숙한 이미지를 가진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었다.

TV 드라마 속 암행어사의 형상은 암행어사 소설이나 설화에 비해 역사적 실제에 근접해 있다. 실제 암행어사는

22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신개념 암행어사가 온다!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 (2020.12.08)

https://mylovekbs.kbs.co.kr/index.html?source=mylovekbs&sname=mylovekbs&stype=magazine&contents_id=70000000394178 (최종확인 2024.3.3)

23 박인희, 「〈이정난전〉의 영웅소설적 성격 연구」,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2011, 391~392쪽.

21 육재용, 「삼재정 연구」,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471쪽.

임무 수행 시 암행(暗行)과 명행(明行)을 섞어서 진행하였는데 암행은 출도의 예비 과정이며 명행은 지방 벼슬아치들에게 역마와 음식 등을 제공해 주는 노문을 위해 시행하였다.²⁴ 암행어사의 활동이 완벽한 보안을 담보할 수 없었기에 왕의 대변자로서 권위를 가진 어사라기보다는 지속적인 모해와 암살, 제거의 위협에 시달리고, 극중에서 암행어사의 죽음이 설정되며 죽음을 가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극한 상황이 강조된다. 또한 왕을 대신하여 암행어사가 맞서야 할 대상은 영의정으로 대표되는 세도가로 <암행어사>에서도 <어사와 조이>에서도 모든 관리들이 어사직을 기피하며 이겸과 이연도 개인의 과거 사연들과 연루되면서 불가피하게 어사직에 임하게 된다. 즉, 이들은 개인의 신원이나 복수를 위해 암행어사가 된다.

다음으로 드라마 속 암행어사는 완벽한 영웅이라기보다 인간적인 면모가 부각된다. <암행어사>의 성이겸은 미결의 첫사랑에 대한 상처로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가진 인물이다. 이름난 싸움꾼이며 노름꾼이자 술버릇이 좋지 않다. <어사와 조이>의 라이언은 형제나 다름없던 세자의 죽음에 상처 입은 인물로 요리에 소질이 있지만 칼싸움을 싫어하고 방향감각이 없어 곧잘 길을 헤맨다. 각각의 인물이 가진 약점은 극한의 직업인 암행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일견 치명적인 단점일 수 있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연인인 다인이나 조이, 하인, 왕의 호위무사인 최도관 혹은 세자의 호위대인 익위사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주어진 상황을 통과하기만 하는 인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이라는 질적 변화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한 인물들의 성장담²⁵을 통해 공감 가능한 영웅 형상을 지향하고 있다.

4.2. 역사·문학·문화적 소재의 활용 가능성

<암행어사>와 <어사와 조이>에 등장하는 소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익숙한 고전소설의 서사를 발견할 수 있다. 간신과 충신의 극단적 대립, 신분이 다른 두 남녀의 사랑, 서자 출신 주인공의 활약,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수난, 탐관오리의 폭압과 고통 받는 백성의 이야기는 <유충렬전>, <춘향전>, <홍길동전>, <박씨전>, <서동지전> 등의 소설과 상통한다. 특히 양반의 자제가 기생의 딸과 사랑에 빠진 후 과거를 보러 간 사이 수절하던 여성이 탐관오리의 수청 요구에 시달리고 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오는 이야기는 세부적인 설정에서까지 <춘향전>과 흡사하다. 서자 출신의 주인공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도적이 되어 이상국을 꿈꾸는 이야기 역시 <홍길동전>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서사들은 남녀주인공의 연인이나 형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로 설정되면서 <암행어사>와 <어사와 조이>의 주요 서사를 구성한다. 이외에도 기녀나 다모, 배비장, 무당과 같은 소재 역시 일련의 기녀 소설이나 <다모전>, <배비장전>, <바리공주>와 같은 고전서사와 맥이 닿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TV 드라마와 고전소설의 정형성은 우리의 전통적 기반 속에서 ‘합의된 서사’일 가능성이 높다.²⁶

두 번째 소재는 역사적 사건과 시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천주교 박해나 농민 봉기, 면천, 칠패시장(남대문 시장), 운종가, 피맛골, 조보, 소현세자의 벼루 사건, 인조와 인절미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천주교 박해 사건(경신박해)’이나 ‘소현세자의 독살²⁷’은 <암행어사>와 <어사와 조이>에서 마지막까지 전체 서사를 이끄는 비밀로 기능한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것인데 이혼(기별), 도시락, 게임, 건축 인테리어, 칠월칠석과 야시장, K-POP <우리

24 박동욱, 「암행어사 공무 활동의 실제와 그 의미: 휴휴자 구강의 일기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총』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23, 124쪽.

25 영웅소설에 질적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영웅소설이 서사 전개로만 본다면 상당히 성장소설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조현우, 「영웅소설의 운명론과 그 위안: 자기 확인이 주는 위안의 기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9, 한국고소설학회, 2020, 62쪽.

26 송성욱, 「고전소설과 TV드라마: TV 드라마의 한국적 아이콘 창출을 위한 시론」,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97쪽.

27 소현세자의 서사에 대한 대중의 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명제, 「소현세자 서사의 탄생과 역사 속의 소현세자」, 『역사와 현실』 125, 한국역사연구회, 2022, 204~213쪽.

집>(2pm), 판소리, 외지부(변호사), 한양(서울) 집값 폭등, 역세권, 부동산 투자, 테이크아웃, 비너 프리포즈, 영화 <링>, 맛집 탐방, 미쉐린 가이드, 주5일 휴무제, 드라마 <파리의 연인>, 한식, 굿, 탈춤, 장원급제, 능소화, 제사, 한복, 무협 등으로 이는 <어사와 조이>에서 두드러진다. 신화나 전설 등 한국적 원형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 역사드라마의 특징²⁸인데 <어사와 조이>에서는 특히 극대화되어 있다. 한국적 콘텐츠가 활용되는 방식으로는 판소리, 탈춤, 장원급제, 제사, 한복, 한식과 같은 전통적 소재들은 현재화하고 이혼, 미쉐린 가이드, 프리포즈, 집값 폭등, 인테리어와 같은 현대적 소재들은 극의 상황에 맞게 변용된다.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별, 감비고차, 반뎃아치, 외지부, 유접소, 낭청, 진홀청, 진청, 투탁, 제웅, 경아리’와 같은 어휘들을 자막과 대사, 회차 제목에서 활용한다. 이외에도 K-POP, TV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한국적 콘텐츠를 환기하거나 차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것이 활용된다.

암행어사는 역사적인 제도이고 암행어사를 역임하였던 실제 인물들이 존재하면서도 다양한 소설에서 소재로 쓰였다. 설화나 민담을 통해 민중에서 회자되는 등 역사적, 허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소재를 취할 수 있는 편폭이 넓고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으로 ‘퓨전 사극’을 표방하면서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고전서사의 전형성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변용된 소재들을 활용하여 정의나 권선징악, 위정자들에 대한 불만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와 당대 사회상을 투영하기에 적합하다.

4.3. 장르의 융합과 혼용이 가능한 서사

암행어사 소설은 송사소설로 분류된다. 송사소설은 송사 모티프가 작품의 전체 플롯을 주도하는 소설로 송사소설의 구조는 사건 발생과 해결, 결말 구조로 구체화되며

이들은 수수께끼적 과제 부여와 과제 해결이라는 일관된 고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갈등 양상이나 구조적·효용적 유사성의 측면에서 TV 드라마에 나타난 암행어사 이야기 역시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송사는 관계의 대립에서 비롯되므로 시대적 사정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기에 신분제의 동요, 가정의 제도적 윤리적 문제, 향촌사회의 계층 갈등, 송사 비리의 현실, 권력이나 관습, 규범의 횡포에 신음하는 약자의 저항 의지 등으로 유형화된다. 이외에도 사건 발생 내지는 조작 수법에서 누명 씌우기, 가짜의 진짜 행세, 절도·암살 등의 유사성을 보이며 범인 색출이나 증거 확보를 위해 기지, 함정, 탐문 수사 등으로 유사성을 보인다.²⁹ 신원, 복수, 징치, 사랑의 성취를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암행어사 소설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송사나 신원, 복수, 징치, 사랑과 같은 암행어사 이야기의 기본 구조를 메인 플롯의 핵심 서사로 본다면 TV 드라마 속 암행어사의 서사에서는 서브 플롯의 주변서사로 무협, 미스터리, 수사, 추리, 코믹, 로맨스, 역사 등을 혼용하고 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³⁰

예로 <암행어사> 7회에서 이 대감 일가 살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 대감의 폐가에서 머물던 어사단은 출몰하는 귀신으로 인해 혼비백산한다. 확인 결과 그녀는 이 대감의 서녀인 애란으로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녀의 증언으로 인해 살인 사건은 해결된다. <어사와 조이> 4회, 서낭당 앞에서 어사의 무리와 조이는 재회하고 처녀 귀신을 만나 공포에 떠다. 조이는 그 귀신을 죽은 친구인 보리의 영혼으로 착각하여 쫓아가고 조이에게 붙잡혀 달아나지 못하는 귀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다가 귀신

29 이현홍, 「송사소설의 갈래적 근거」, 『문창어문논집』 33, 문창어문학회, 1996, 17~18쪽.

30 장르적 특성이 결합된 드라마를 ‘혼합 장르’라고 통칭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인 플롯의 핵심 서사와 서브 플롯의 주변 서사를 구분할 필요해야 한다. 메인 플롯의 핵심 서사에 나타난 특징이 장르드라마로서의 성격을 규정짓는다면, 서브 플롯의 주변 서사는 핵심 서사의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거나 이완시키기 위해 핵심 장르와 다른 장르적 기법을 기능적으로 활용한다. 윤석진, 「한국 텔레비전드라마 장르 유형에 관한 시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9-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287쪽.

28 조미숙, 앞의 논문, 2014, 456쪽.

변장을 했던 비령을 통해 최말종이 거느리는 소양상단의 정체가 드러난다. 이처럼 각 장면들은 미스터리에서 수사로, 미스터리에서 코믹으로 다시 추리로 쉽게 전환된다.

암행어사 이야기의 메인 플롯은 삽화식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인물의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암행어사>의 최종회인 16회는 조정에서 암행어사를 사칭하는 가짜 암행어사 사건이 발생하고 어사단이 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는 열린 결말로 끝을 맺는다. 새로운 사건의 발생과 더불어 서사가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한편, <어사와 조이>의 10회 제목은 '외지부(外知部): 조선변호사'이며 11회의 제목은 '치종의(治腫醫): 종기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 서사의 후반부인 10회와 11회에 각각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한다. 승울은 조이의 어릴 적 친구이며 치종이는 광순의 아버지로 세자 독살 사건의 진실을 아는 인물이다. 이러한 설정 역시 기존 등장인물과 관련된 새로운 인물의 첨입을 통해 하나의 삽화를 구성한 것인데 승울의 출현이 서사 전개 상 별다른 기여를 못하는 삽화인 반면, 치종이의 등장은 전체 서사의 결말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결론

어사가 숨어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극히 독특한 방식의 지방정치 감찰방식인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정치적 제도의 하나로 시작된 현존했던 제도이면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확인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구전과 문헌을 통해 널리 회자되면서 '암행어사 이야기'를 낳고 소설의 주요 소재로 활용되어 다양한 작품을 파생시켰다. 암행어사 제도가 폐지된 근대 이후에도 암행어사에 대한 기대 심리는 향유층의 다양한 상상력에 힘입어 각 시대적 상황 속 향유되는 매체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암행어사 콘텐츠는 인물의 형상이나 구조, 내용의 측면에서 변용의

폭이 크지 않은 채로 향유된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TV 드라마이다.

암행어사 콘텐츠는 TV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2000년 이후 한류 역사 드라마의 유행 속에서 암행어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또다시 방영되었다는 점은 암행어사 콘텐츠가 한국적 문화 원형임을 증명하고 암행어사 콘텐츠의 창작 소재로서의 가치를 가늠하게 하는 새로운 사례가 된다.³¹ <암행어사>와 <어사와 조이>는 인물 형상, 소재의 활용, 구조의 측면에서 기존 암행어사 이야기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차이를 보인다.

TV 드라마에서는 암행어사의 개인적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임무 완수의 결과보다는 암행어사단이라는 집단의 구성과 협업의 과정이 부각된다. 복수의 주인공과 역할의 분산은 어사의 암행에 도움을 주고 서사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시대적 배경이나 소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암행어사 콘텐츠의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 적용을 시도함으로써 다소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끝으로 기존 암행어사 이야기들의 문제 해결식 구조를 계승하여 순행적으로 복수의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인다. 그러나 암행어사와 탐관오리로 대변되는 영의정의 대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변별된다.

이러한 TV 드라마 속 암행어사 이야기는 친근하고 친숙한 영웅들의 출현을 바라는 기대 심리를 담고 있으며 암행어사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천정론(天定論)에 의해 영웅이 결정되는 것과 달리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고 '영웅되

31 최래옥은 암행어사 이야기를 중국 명판관 포청천 이야기와 비교하며 후자가 정적 공안류(靜的公案類)라면 암행어사 이야기는 어사가 억울한 사람을 직접 변장하고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동적 공안류(動的公案類)로 변별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암행어사 이야기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건 해결에 인정미가 넘치며 비장, 골계, 우아, 장엄미와 재미가 골고루 들어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암행어사 이야기는 백성들의 여러 문제를 통쾌하게 해결해 주는 후련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인기가 있다고 보았다. 고석규·심희기·최래옥·설성경·육재용·최운식,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박이정, 1999, 242쪽.

기'의 과정에 중점이 주어진다. 다음으로, TV 드라마 속 암행어사 콘텐츠는 역사적이고 허구적이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암행어사 이야기에 문화적이고 현대적인 면모를 더함으로써 당대와 현대의 사회상을 투영하고 있다. 끝으로 TV 드라마 속 암행어사 이야기의 문제 해결식 구조는 서브플롯의 설정을 통해 다양한 삽화를 담을 수 있고 자유로운 장르의 전환과 인물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적 원형이자 창작소재로서의 의미를 확보한다.

하나의 콘텐츠가 시대를 거슬러 전승되면서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암행어사는 근대 이전 민중의 열망을 담은 존재였으며 근대 이후 민족의 영웅으로 이상화되었다가 오늘에 이르러 다시 시대를 반영하는 존재로 소환되었고 여전히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고석규·심희기·최래옥·설성경·육재용·최운식,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박이정, 1999.
- 고훈, 「고전문학과 만화의 결합 양상 연구: 만화 〈신암행어사〉에 차용된 고전요소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5, 대중서사학회, 2011.
- 박동욱, 「암행어사 공무 활동의 실재와 그 의미: 휴휴자 구강의 일기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총』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23.
- 박인희, 「〈이정난전〉의 영웅소설적 성격 연구」,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2011.
- 송성욱, 「고전소설과 TV드라마: TV드라마의 한국적 아이콘 창출을 위한 시론」,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 _____, 「문화콘텐츠 창작소재와 문화원형」, 『인문콘텐츠』 6, 인문콘텐츠학회, 2005.
- 심재우, 「역사 속의 박문수와 암행어사로의 형상화」, 『역사와실학』 41, 역사실학회, 2010.
- 오윤선, 「박문수전에 나타난 박문수의 인물형과 고전서사물에서의 변이 양상」, 『우리어문연구』 31, 우리어문학회, 2008.
- 유광수, 「암행어사 이야기의 현재적 적용과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하여: 〈신암행어사〉를 대상으로」, 『온지논총』 37, 온지학회, 2013.
- 육재용, 「암행어사 소설에 드러난 어사의 기능과 역할」, 『한민족어문학』 37, 한민족어문학회, 2000.
- _____, 「박문수전의 현대소설·설화로의 변이 양상」, 『고소설연구』 11, 한국고소설학회, 2001.
- _____, 「삼래정 연구」,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윤석진, 「한국 텔레비전드라마 장르 유형에 관한 시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9-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 이명제, 「소현세자 서사의 탄생과 역사 속의 소현세자」, 『역사와 현실』 125, 한국역사연구회, 2022.
- 이승수, 「박문수 전승의 역사적 기반 탐색」, 『한국문화』 42, 서울대 규장각 한국문화연구원, 2008.
- 이현홍, 「송사소설의 갈래적 근거」, 『문창어문논집』 33, 문창어문학회, 1996.
- 정병설, 「고소설과 텔레비전드라마의 비교」, 『한국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조미숙, 「드라마 스토리텔링 방식의 특성: 2000년대 이후 한류 역사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4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4.
- 조현우, 「영웅소설의 운명론과 그 위안: 자기 확인이 주는 위안의 기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9, 한국고소설학회, 2020.

2. 기타자료

- KBS2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 <https://program.kbs.co.kr/2tv/drama/royalsecretagent/pc/index.html>(최종확인 2024.3.3)
- TVN 어사와 조이. <https://tvn.cjenm.com/ko/inspectorjoy/character/?pgmPrsnGropSeq=2034>(최종확인 2024.3.3)
- 김종성의 사극으로 영화읽기 663: 철종이 우울증·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린 이유.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71902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최종확인 2024.3.3)
-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신개념 암행어사가 온다!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 (2020.12.8) https://mylovekbs.kbs.co.kr/index.html?source=mylovekbs&sname=mylovekbs&stype=magazine&contents_id=70000000394178(최종확인 2024.3.3)

Abstract**The aspects and meaning of the amhaeng-eosa content**

focusing on TV dramas

Seo, Bo-Young | Sunmoon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aspects and meaning of the amhaeng-eosa content were examined, focusing on TV dramas. Through this, we will be able to see the adaptation of the amhaeng-eosa story.

The amhaeng-eosa is one of the political systems of the Joseon Dynasty and is an actual historical fact. Their stories were widely talked about as folk tales, which gave rise to various works of fiction. When the amhaeng-eosa system was abolished, amhaeng-eosa story continue to exist today through various media. In particular, TV dramas are the best example of this.

Among them, in KBS2's <The amhaeng-eosa : Joseon Secret Inspector Team> and tvN's <The Eosa and Joy>, amhaeng-eosa groups can help with the work of the amhaeng-eosa and tell various stories. Various materials, including past and present, are used. The problem-solving structure of the amhaeng-eosa stories appears.

The amhaeng-eosa in a TV drama contains viewers' expectations for the appearance of heroes. By adding cultural and modern aspects to the story of the amhaeng-eosa, we can reflect the contemporary times. The problem-solving structure allows for the setting of subplots, the transition of detailed genres, and the entry and exit of characters. From the above, the content of the amhaeng-eosa has value as a creative Korean prototype.

Keywords the amhaeng-eosa content, TV dramas, creative Korean prototype, aspects, meaning
